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2.1.24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3.0	-5.9	-5.7	-12.9	10.2	10.2	1.0	1.0	1.8	1.8	<p>SKT 44.9% (Flat WoW, +0.9%p MoM) KT 44.1% (+0.3%p WoW, +0.5%p MoM) LGU+ 35.4% (Flat WoW, +0.2%p MoM) KT, 2주 연속 외국인 순매수 기록</p>
통신업종	1.1	-5.5	-2.8	-3.7	6.2	6.2	0.5	0.5	5.9	5.9	
SK텔레콤	1.8	-8.5	6.4	7.3	5.0	5.2	0.5	0.5	5.6	6.6	
KT	1.8	-1.1	0.0	-9.0	8.0	7.7	0.6	0.5	5.2	5.7	
LG유플러스	-0.7	-5.7	-10.1	-11.9	7.8	7.2	0.7	0.7	4.3	4.8	
AT&T	-0.7	8.7	3.3	-4.6	7.9	8.5	1.1	1.0	7.8	7.3	
Verizon	-0.7	0.7	-0.4	-5.0	9.9	9.9	2.8	2.4	4.8	4.8	
T-Mobile	-7.7	-16.1	-13.0	-29.7	44.9	33.6	1.8	1.8	0.0	0.0	
NTT	-0.3	2.4	4.6	14.8	13.1	10.3	1.4	1.4	3.2	3.4	
KDDI	0.1	5.8	-3.4	3.2	12.5	12.1	1.8	1.6	3.4	3.5	
Softbank	-0.2	1.8	-17.0	-24.4	2.4	7.2	1.2	0.9	0.8	0.9	
China Mobile	0.9	10.7	4.7	2.1	7.5	7.1	0.7	0.7	7.3	8.0	
China Unicom	-0.7	4.9	-1.0	-5.8	6.7	6.1	0.3	0.3	7.9	9.5	
China Telecom	1.4	14.1	3.9	-8.5	8.0	7.8	0.5	0.5	7.5	8.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4.1%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중시 하락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지속된 가운데 방어주로서의 통신주 매력 부각
미국의 1, 2위 이동사인 Verizon과 AT&T, C-Band 5G 서비스 공식 출시
국내 기관은 KT, SKT 순매수, LGU+ 순매도. 외국인인 KT, SKT, LGU+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25일(화) Verizon, 26일(수) AT&T, 28일(금) LG유플러스가 4Q21 실적을 발표할 예정
LG유플러스는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되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발표 기대
불안한 증시 속 통신주는 외국인 지분율 상승세 지속으로 방어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전망
금주 미국 통신사들의 5G 투자 계획 및 규모가 국내 통신장비 섹터センチ먼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Verizon 4Q21 실적발표	26 AT&T 4Q21 실적발표	27	28 LG유플러스 4Q21 실적발표	29

3 주간 뉴스

▶ 美서 더 빠른 '중대역 5G' 개통...최대 다운로드 속도, LTE 10배 (매일경제)

- 미국의 1, 2위 이동사인 AT&T와 버라이즌,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새로운 중대역 5G 서비스를 시작
- 이번 서비스는 3.5GHz 주파수 대역(3.7~3.98GHz) 이용하는 C-밴드 5G로 LTE보다 10배 이상 속도 향상
- AT&T와 버라이즌이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하는 C-band 사용자 수는 각각 7,500만명과 9,000만명
- ⇒ AT&T와 버라이즌은 주파수 경매에서 중대역 5G 주파수 확보에만 각각 230억달러, 455억달러 지출
- ⇒ 한편 항공사들과의 논쟁으로 인해 공항 주변 지역에서의 C-밴드 5G 서비스 개통은 포기

▶ 英 전 상무장관 '화웨이 5G 장비 배제는 美 압박 외의 결정' (아이뉴스24)

- 영국 전 상무장관,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미국 압박으로 화웨이 5G 장비 영국 도입을 배제했다고 폭로
- 그는 안보 부처가 화웨이 장비 및 서비스 사용으로 그 어떤 위험도 없음을 이미 담보했다고 주장
- 영국은 2020년 7월, 화웨이의 5G 제품과 장비 사용을 금지, 영국은 화웨이의 완전 퇴출 입장 고수 중
- ⇒ 한편, 영국 BT그룹 등 4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 요금을 10% 내외 규모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
- ⇒ 인상을 통해 확보한 금액은 5G 업그레이드 및 화웨이 제재로 인해 추가된 비용 감당에 사용될 전망

▶ 카카오·삼성SDS·세브란스병원, 5G 특화망 도입 관심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의 5G 특화망 간담회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삼성SDS, LG CNS, 세브란스병원 등이 참여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우 5G 특화망을 활용해 중대 재해 예방을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획 중
- LG CNS는 그룹 계열사인 LG전자, LG화학 등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 논의 중
- ⇒ 5G 주파수를 활용한 특화망 사용으로 AI, 메타버스 등 기술과 결합된 융합서비스 창출효과 기대
- ⇒ 5G 특화망 1호 기업인 네이버 또한 다양한 기업 대상(B2B) 서비스로 혁신 사례를 확대할 계획

▶ 이통 3사, 삼성 신형 5G 기지국 도입... 상용화 이후 첫 장비 교체 (전자신문)

-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신형 32트랜스미션(TRx)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를 도입
- 이통 3사는 신형 32 TRx 5G 기지국 장비를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아 3월부터 본격 구축에 돌입
- 옥상 등에 자리한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설치 후 1~2시간이면 세팅 완료 가능
- ⇒ 삼성의 32 TRx 5G 기지국 장비는 광중계기와 안테나를 하나로 통합, 비용 효율성이 높은 장비
- ⇒ 이통 3사의 5G 상용화 이후 첫 장비 교체로 커버리지 확대와 체감 전송속도·품질 향상이 기대

▶ 에릭슨, 애플 상대로 5G 특허침해 소송 (전자신문)

-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애플을 상대로 5G 이동통신 라이선스 관련 추가 소송을 제기
- 애플이 5G 특허 라이선스 계약 갱신이 무산된 후에 아이폰에 무단으로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
- 애플과 에릭슨이 2015년 체결한 5G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최종 종료
- ⇒ 애플은 에릭슨이 세계적으로 과도한 로열티를 갈취하고 있다며 계약 재갱신 협상을 거부
- ⇒ 에릭슨은 5.7만건의 특허 포트폴리오 보유, 연간 영업이익에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중 3분의 1

▶ 中 최초 민간 저궤도 광대역 통신위성 양산 (ZD Net Korea)

- 중국, 민간 기업인 갈럭시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6개의 저궤도 광대역 통신 위성 정식 출하
-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양산된 저궤도 광대역 통신 위성으로 1분기 중 발사될 예정
- 위성 발사되면, 위성 인터넷 테스트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 번에 30분 이상 연속 통신 서비스 가능
- ⇒ 글로벌 우주 인프라 건설에서 위성의 저비용 대량 생산이 우주 인프라 건설의 관건이 될 전망
- ⇒ 스타링크가 중국 우주 정거장과 충돌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중국 성공 여부도 향후 전망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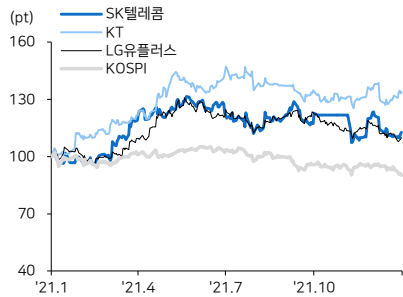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57,300	10.5	16.2	16.1	1.3	1.4	1.9	1.7	4.7	4.7	4.2	4.1	9.9	8.6
	KT	31,750	7.0	20.7	21.3	1.3	1.4	0.9	0.9	4.3	4.5	3.0	2.9	7.3	7.3
	LG유플러스	13,350	4.9	11.6	12.1	0.9	1.0	0.6	0.7	2.9	3.0	3.6	3.4	9.8	10.0
미국	AT&T	26.6	190.0	168.7	155.3	31.8	31.6	24.0	22.0	51.9	51.0	7.1	7.2	13.5	12.7
	Verizon	53.2	223.2	133.3	133.8	32.3	32.8	22.5	22.3	48.4	49.5	7.6	7.4	30.1	26.6
	T-Mobile	101.6	126.9	80.1	82.1	6.9	8.9	2.8	3.8	26.8	27.5	7.5	7.3	4.4	4.5
일본	NTT	3,262	104.0	108.2	105.6	15.1	15.3	8.4	9.9	29.0	28.7	6.3	6.0	10.8	14.6
	KDDI	3,562	72.2	48.5	47.5	9.6	9.3	6.0	5.8	16.3	15.8	5.4	5.3	14.5	13.8
	Softbank	5,487	83.2	50.9	53.1	49.9	6.5	37.1	11.4	50.0	16.2	5.0	14.8	39.3	13.5
중국	China Mobile	51.3	142.5	133.4	141.7	18.8	20.3	18.1	19.6	48.7	51.1	1.5	1.5	9.7	9.9
	China Unicom	4.0	15.9	51.3	54.2	2.0	2.4	2.4	2.6	15.2	15.9	0.8	0.8	4.5	5.0
	China Telecom	2.9	57.5	68.6	73.7	5.2	5.7	4.1	4.4	20.1	21.1	2.6	2.5	6.5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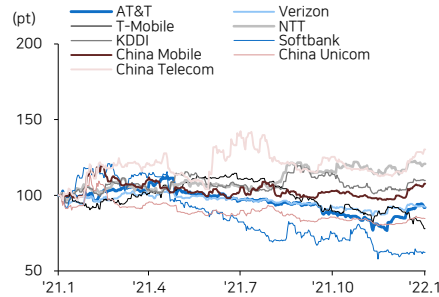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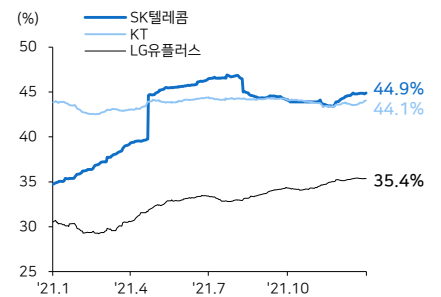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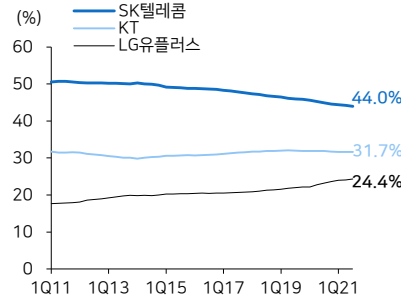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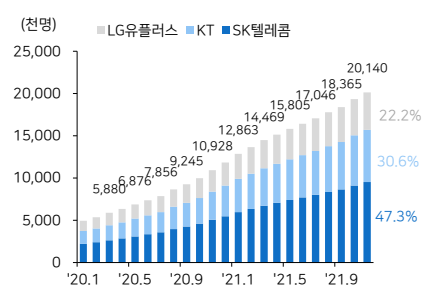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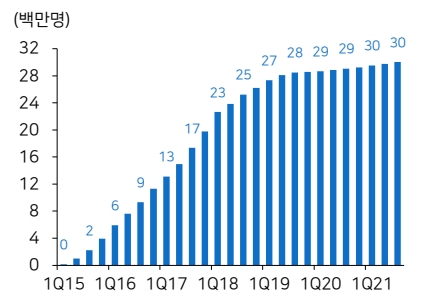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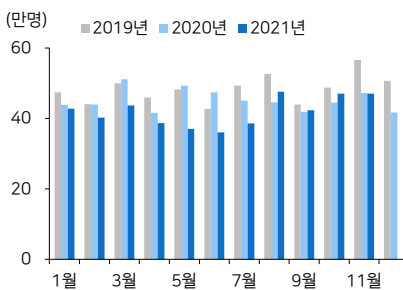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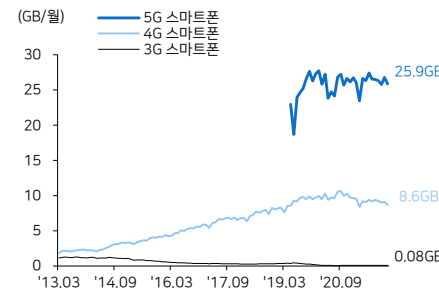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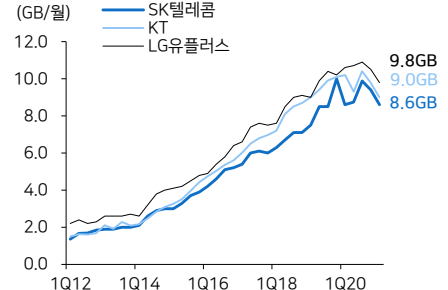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